

2013.10

Webzine

Vol.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 주자입니다.

CONTENTS

03 MESSAGE

메시지

· 주력산업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엔진 육성

05 HOT ISSUE

핫이슈

- 광양경제청 EU지역 투자유치활동 전개, 현지기업 관심집중
- 광양경제청, F1대회를 투자유치 기회로
- 광양경제청 제62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광양경제청『대만 향만당국과 물류협력 강화』
- 광양경제청, 일본 유망투자기업 발굴 활동
- 광양경제청,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08 INVEST IN GFEZ

GFEZ 지구소개 : 광양지구

·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10 PHOTO NEWS

포토뉴스

· GFEZ 주요 포토뉴스

12

홍보관 견학 예약 신청서

“광양만권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 주력산업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엔진 육성



최근 제조업의 극심한 불황과 함께 정부에서는 경제정책 기조인「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 내용으로는 경자구역과 국가산단 등 각종 특구의 투자유치 현황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한 뒤 지구축소·폐쇄 등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는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별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제조환경과 원자재를 활용한 특성화지구 조성 등을 통하여 '선 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현재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활기차게 신규 산단을 준비 중인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별 특성화 및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광양제철소의 철강·금속,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광양항의 물류산업을 선정하여 근간산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몸과 비교하여 철강은 뼈, 석유화학은 살, 물류는 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는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간 2,000만톤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대의 단일제철소로 자동차용 도금강판과 조선용 후판을 주로 생산하며, 여수국가산단은 원유 정제 및 에틸렌 생산으로 작년 생산액 100조 달성을 이루어내는 국내 최대의 화학산업 메카이며, 광양항은 연간 200만 TEU의 물동량 창출과 함께 지난 7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여 광양항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산업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집 키우기 성장에만 집중하여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몇 십년 후에는 기존산업의 노후화 및 경쟁력 저하 등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빙하기 시대의 공룡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철강산업의 세계동향은 공급과잉과 중국 철강업계의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중이며, 화학업계 또한 중국기업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철광석, 원유, 가스를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광양만권내 기업들도 미래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포스코의 경우 마그네슘을 비롯한 비철금속, 침상코크스 탄소소재 등 철강을 비롯한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비전을 보이고 있으며,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 또한 범용 화학 제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증설 중이다.

그러나 광양만권은 단순한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신성장 엔진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물류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산업군 형성

과 함께 시너지 효과와 극대화 해야 한다.

철강과 화학이라는 풍부한 원자재와 항만, 임해산단,

도로, KTX라는 충분한 산업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양만권의 산업은 기초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는 광양만권에서 생산하지만 자동차, 가전, 조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타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철강과 화학의 산업간 융합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정밀화학 등 기존의 기초산업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형성된 산업군을 우리지역으로 이전하여 유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새로 시작하는 미래산업은 특성화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밀그림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시하여 미래성장 엔진의 선점을 위한 투자를 유도해 내야한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유치 방법은 밀그림을 그리는 기획단계에서 수요예측과 산단의 공급시기를 조율하기가 용이하며, 산업용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성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계는 북미에서 채굴하고 있는 셰일가스에 주목

하고 있다.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의 등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된 기업체들은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광양만권에서도 신규시장인 셰일가스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울촌산단에 동지름 트 세아제강은 유정용 강관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생산품의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국내 건설 업체에서는 셰일가스 관련 전문기업으로 사업전환을 고려 중이다.

이와같이 신규시장에 대하여 기업체들은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의 오리발처럼 소리없는 전쟁을 준비 중이다.



광양만권은 단순한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신성장 엔진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물류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군 형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산업은 획일화된 무기체가 아니다. 복잡하지만 살아있고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있다. GFEZ 제2의 도약은 이처럼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

직이는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항만을 이용한 에너지·원자재 수송, 에너지 채굴을 위한 해양 플랜트 및 수송선, 에너지를 가공하기 위한 중공업, 중공업을 위한 철강·금속가공, 가공을 위한 기계류 그리고 중공업에서 가공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화학 제품, 기초제품에서 생산되는 정밀화학 등이 모두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여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라는 말이 있다. 광양만권에 미래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잘 분석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지시등을 구축해야한다.

임해산단을 활용한 에너지와 중공업, 화학을 활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 및 자동차부품, 비철금속을 활용한 경량 제품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으며, 광양만권 제2의 도약을 위한 엔진을 확보할 수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희 봉

광양경제청 EU지역 투자유치활동 전개, 현지기업 관심집중



독일 화학산업단지와 MOU 체결 및 한-EU 수교 50주년 합동비즈니스 투자설명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9.23.부터 10일간의 EU지역 투자유치 마케팅을 한 투자유치단은 파리, 뮌헨, 브뤼셀 등지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프랑스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테크니사를 기점으로, 식품사료제조업체 다이나나그룹, 관광레저 글로벌기업인 클럽메드 등 현지 기업들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이들로부터 광양만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독일에 위치한 바이에른화학산업단지(CB-Chemie-Cluster in Bayern, CCB)와 MOU(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BMW, 지멘스, Linde Group 등 글로벌기업들의 본산지로 알려진 독일 바이에른주 산업단지와 광양경제청 간 장단기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 바이에른주는 GDP 5만불 이상으로 독일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신소재, 의료기술 등 현재 19개의 산업단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이에른 화학산업단지는 이 중 가장 큰 규모(260여개 기업)와 높은 경제기여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이희봉 청장은 유럽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한-EU 수교 50주년 합동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여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비즈니스포럼에는 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 유럽현지 기업인 Farmax Global BVBA, Airdeck Building Concepts, Green Freight Europe 등과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유럽본부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과 EU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시종일관 격려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광양경제청, F1대회를 투자유치 기회로

F1 경주장내 기업부스 운영, 국내·외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F1 대회 기간(10.4~10.6)동안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F1 경주장내 기업부스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잠재 투자가를 초청하여 F1 경주 관람뿐만 아니라 광양청 홍보, 투자상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안내와 투자여건 설명 등 광양만권 투자유치를 적극 펼쳤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전남을 방문하는 기업인이 세계 3대 스포츠중 하나인 F1 경주의 현장감 있는 관람과 더불어 광양경제청 투자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GFEZ 이미지 제고와 광양만권내 투자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세계 경기불황으로 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F1 대회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인을 초청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 제62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2014년 도비분담금 등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62회 조합회의(의장 이용재)임시회가 9월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GFEZ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2014년도 도비분담금 요구안이 처리되었다.

지난 4월 5일자로 시행된 「전라남도 경관 조례」의 일부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명칭변경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GFEZ 조합규정에 반영하여 개발행위 시 경관심의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게 되었다.

2014년도 도비분담금은 총 43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오는 12월에 편성하는 국비운영비와 기반시설사업비, 그리고 울촌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부담금 요구안은 개발구역 면적비율에 따라 양 도(전남 85.4%·경남 14.6%)에서 부담하는 경비이며, 광양만권의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회봉 청장은 “이번 조합회의는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안을 심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국면에 대비하여 전방위적인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활동과 경제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대만 항만당국과 물류협력 강화』

광양항 물동량 증대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회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9월 12일 광양경제청, 광양항 및 여수EXPO현장을 방문한 대만 교통부, 항만공사 및 양명해운 관계자와 해운물류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대만 교통부 및 해운물류 관계자 방문은 '12년 8월 광양경제청과 대만 국제물류 및 공급연협회의의 항만물동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의 후속조치로 성사되었다.

광양경제청은 대만 교통부 및 해운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의 개발현황, 투자여건과 더불어 광양항

의 입지여건, 물동량 취급 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만 항만과의 물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항만과 우리나라 항만은 연간 30만TEU, 광양항은 연간 7만TEU의 물동량 교류가 있으나, 금번에 방문한 대만 교통부 및 해운물류 관계자에게 광양항의 17m 깊은 수심, 넓은 배후단지, 인센티브, 주변산업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어, 광양항과 대만항간의 물동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경제청, 일본 유망투자기업 발굴 활동

2013 서일본지역 잠재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연속 개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희봉 청장)은 지난 9월2일부터 5일간 일본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지역을 순회하며 일본 첨단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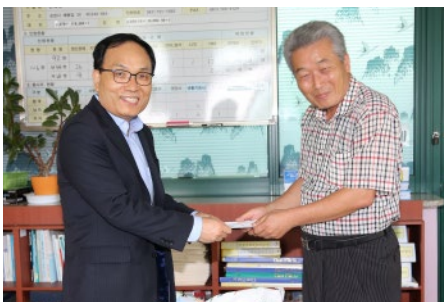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일본의 첨단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별기업 방문상담과 일본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상담기업 중에서 광양만권에 관심을 표명한 일부기업에 대하여는 광양만권 산업시찰을 제안하여 호응을 얻었다.

이들 기업은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철강·기계·부품소재 관련기업과 신재생 에너지·정밀화학 등의 산업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전략적 투자지역으로써 광양만권의 잠재력을 확인할 계획이며, 10월말 제조·물류분야 기업 중심으로 『GFEZ 산업시찰단』을 구성해 광양항 및 울촌산단 등 광양만권 산업 인프라를 시찰하고 투자환경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방일기간 중 4회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개 기업을 방문하였는데 참가자 중 오사카대한상공회의소 고영관 회장과 광양출신의 고려무역재팬 박양기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향인 광양만권에 더욱 열의를 갖고 오사카지역의 유망기업을 광양만권에 소개하고 청에서 향후 개최하는 오사카지역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토의 태양광 관련업체를 방문하였는데 이 기업은 실리콘 원자재 절단 가공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태양광 패널의 원료를 생산하는 등 수십 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대표인 무로조노씨는 광양만권이 물류, 제조환경 등 적합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 광양만권 내 현지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내 4개시군 7곳 방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GFEZ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그동안 광양경제청은 광양읍사무소와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주최로 직원들의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알뜰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 및 잔여물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고, 매분기 및 명절기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과 농촌일손돕기, 태풍피해복구, 자연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해왔다.

이희봉 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GFEZ는 여수·순천·광양시와 하동군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광양지구

광양지구에 위치한 광양항은 광양만의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항만배후에 세계 제일의 POSCO와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존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으며, 원유, 석유화학제품, 비료, 석탄, 철광석, 철강제품 등 주요한 산업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내 수면적이 122.99km²(여수 4.99, 광양 118.00)에 달하고 총 84개 선석을 갖추고 있어 컨테이너선, 유조선, 산물선, 케미칼선, LNG선 등 연간 6만여척이 입출항하며, 약 2.42억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미주와 구주, 아시아를 잇는 주간선항로 상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조건, 광양만에 위치하여 연중 정온수역을 유지하는 천혜의 입지여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 환적화물의 거점항 역할 수행, 국제물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21세기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987년 개발사업을 시작해 1997년에 개장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과 국제 주간 선항로에 위치하고 있고 수심이 15~17m에 이르러 1만8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연간 360일 이상 하역작업이 가능하며 자연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세계 경기불황으로 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F1 대회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인을 초청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지구(13.64km²) -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 제철 관련 재료,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거점 조성
-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환적화물의 중심지 형성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6개 선석 완공, 2020년까지 총 25개 선석 개발 예정
- 광양항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동시 지정되어 특별 혜택 부여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서 2012년 6월 총 448만 m²(동측 254만m²/2008년 12월, 서측 193만m²/2012년 6월)가 완공되었다.

동측배후단지는 현재까지 일본, 영국 등을 비롯하여 27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운영에 들어갔고 향후 이들 기업이 본격 가동될 경우 약 50만TEU/년의 추가 물동량이 발생하여 광양항이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동측배후단지는 냉동·냉장창고, 복합운송창고, 황금물류센터 등 각종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물류 여건이 뛰어나다.

2012년 6월에 완공된 서측배후단지 193만m²에는 복합물류, 일본기업, 해양플렌트, 임식 료품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광양항을 통해 반입된 화물을 조립·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후 재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에 최적지이다.

입주하는 기업에는 무관세 및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배후물류단지: 우대임대료 30 원/m²·월, 기본 임대료 200원/m²·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황금 산업단지

황금산업단지는 전남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1.12km²(해수부 0.83km², 육지부 0.29km²)를 사업비 3,534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서측배후단지

황금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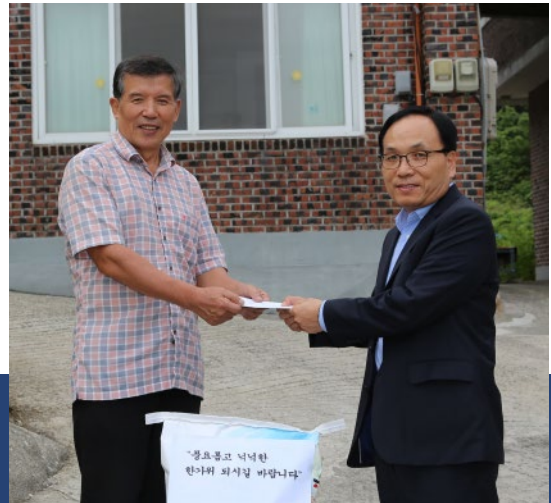
GFEZ, EU지역 투자유치활동 전개, 현지기업 관심집중
(2013.10.01)



제62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2013.09.23)



대만 항만당국과 물류협력 강화
(2013.09.13)



관내 4개시군 7곳 방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2013.09.13)



2013 서일본지역 잠재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연속 개최
(2013.09.09)



GFEZ 입주기업 방문, 기업환경 및 애로사항 청취
(2013.08.30)



홍보모니터링 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2013.08.23)



GFEZ 청장 하동지구 공사현장 방문
(2013.08.23)



구 분		내 용	비 고
방문 단체명			
견학일자		년 월 일, : 시 ~ : 시	
견학내용			
방문인원 (대표자명)			
신청자 연락처	성 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기 타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 홍보관 견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1-760-5702) 또는 이메일(suejhun@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담당관실 [전화:061-760-5091/3](tel:061-760-5091), [팩스:061-760-5702](tel:061-760-5702)

성공플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동북아 비즈니스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 **편리한 교통인프라**
동북아 시장의 관문으로 항만·항공·도로·철도 등 편리한 접근성
- **최적의 산업인프라**
POSCO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 등 풍부한 산업단지
- **최대의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공
- **우수한 정주환경**
최적의 주거·교육·의료시설 및 풍부한 관광자원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 희 봉
<http://www.gfez.go.kr>
